

'세월호 참사 10주기'...광주·전남 곳곳 추모행사

12일 광주분향소 설치·13일 청소년지역문화제 참사 당일 목포신항 '10주기 목포 기억식' 예고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자 광주·전남 곳곳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행사가 마련됐다.

시민분향소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민 애도 분위기를 모으는 한편 안전사회 건설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바람이 담긴 문화제 등이 펼쳐진다.

9일 세월호참사10주기광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내 광주시민분향소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관련 행사들이 이어진다. 시민분향소는 10주기를 맞는 울

해도 진상규명과 같은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현화·분향 등을 통해 담아낸다. 시민분향소는 12일 오전 설치를 시작으로 참사 당일 16일 오후 8시까지 매일 운영된다.

참사 10주기를 코앞에 둔 주말에도 세월호 추모 분위기는 이어진다. 문화행동동상과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청소년춤통모임 등은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24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를 연다.

세월호 구조 72시간의 기록, 희생자 304명 이름 걸게, 광주 청소년들

이 세월호를 기억해온 지난 10년 등 참사를 되돌아보는 관련 전시가 마련된다. 참사를 기억하는 촛불과 팔찌를 만들고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체험도 준비됐다.

같은날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도 기억문화제가 진행된다. 참사 날짜인 '4월 16일'에 맞춰 오후 4시 16분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목포 시민 304명이 참여한다.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거대한 리본을 완성하는 퍼포먼스 '이름을 불러주세요'가 예고됐다.

광주 남구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을 하루 앞둔 15일 남구 주월동 푸른길 광장에서 기억문화제를 연다. 지역 청소년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추모 공연 등을 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 뜻을 전

달한다.

참사 당일인 16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세월호 선체가 거처된 목포신항에서 참사 10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린다.

4·16재단이 주최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행사는 기억사와 추모사, 공연, 선언문 낭독과 현화 순으로 진행된다.

목포 기억식 행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여한다.

이밖에 광주 지역 예술인들이 참사 10주기 당일 오후 2시부터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예술인행동장 행사를 여는다면, 20일 오후 3시에는 동구 독립영화관에서 세월호 추모 다큐멘터리 영화 '세 가지 안부' 상영회가 열린다.

포토뉴스



중장동, 취약계층 '가스 안전 타이머 콰' 보급 동구 중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독거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타이머 설치·보급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스안전타이머 전문생산업체인 (주)세이프퀴슬과 협업을 진행했다. /조선주 기자



별량면, 전남 최초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접수' 성료 순천시 별량면은 2024년 별량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더욱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허형채 광양읍 협의체위원장, 허말라야서 광양사랑 광양시는 허형채 광양읍 협의체 위원장이 네팔 허말라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며 광양사랑을 실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이정선 교육감, 광주여성 방문해 진로 특강 실시

'시대를 이끄는 여성' 특강·질의응답...현장 열기 뜨거워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9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이하 광주여성상) 방문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10일 광주여성상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은 '시대를 이끄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광주여성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학생들은 '롤 모델', '교육감에 도전한 이유', '새로운 시대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 여러 질문을 쏟아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현장은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정선 교육감은 롤 모델로 '희생과 헌신으로 기억되는 어머니', '용서와 화해의 대명사 벨슨 만텔라',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를 꼽았다.

또 현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원리로 '재미'를 꼽았으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부단히 자기성찰을 전개할 때 비로소 재미를 품고 자신의 과제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주 기자

서구스타트업센터 제4기 입주기업 10팀 모집

서구가 서구스타트업센터 제4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서구스타트업센터(서구 상무대로 1123)는 창업가 지원을 위해 공유사무실을 조성했으며 올해 독립사무실 4실(기업당 4인 내외), 공유사무실 6실(기업당 2인 이하) 총 1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기간은 5월 2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로 서구는 ▲최대 2년 무상 임차(독립 사무실) ▲창작 스튜디오 등 창업지원 시설 우선 이용 ▲상시 창업 상담 ▲분야별 전문가 창업 멘토링 지원 ▲수요 맞춤형 창업 교육 ▲IR(외부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입주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장분위기 획기적 개선'

생활쓰레기 민원도 감소 추세...구민들로부터 호평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입 임원일 이사장 취임 후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첫째,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획기적인 정신 변화이다. 병폐와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소통형심판장을 중심으로 '혁신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감사실을 중심으로 '반부패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

련, 직원들로부터 하아급 변화와 혁신하는 자세를 정착시켜 나간 결과, 작년 12월에는 KSR 인증원 주관 부패방지경영인증(ISO37001)을 획득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둘째 '신바람 나는 공단' 만들기다. 공단 창립 이후 처음으로 매월 1일 '가족의 날 행사'를 추진해 우수 직원 포상과 함께 격려, 직원들 한자리에 소통·소속감·화합 분위기를 조성 등 전 직원이 참여해 신바람 나는 공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셋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컨설턴트 용역을 추진하고 직원정신교육과 감사·회계·기초업무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이수토록 하고 있다.

넷째, 근무기강 확립과, 책임경영을 위해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2가지 이상 관련없는 경합된 징계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다섯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작년까지 2000만원이었던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작년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상 공사 4건을 올해 공

개정 임찰을 통해 예산집행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해나가고 있다.

여섯째 '생활폐기물 1일 수거제' 정착이다.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올해에는 일일수거가 반드시 정착되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거 구역을 전면 조정해 '수거구역조정안'이 마련됐다.

그 동안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 이후 지속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설연휴 민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76% 감소했고 올해 4월 현재는 전년대비 민원 건수가 37%(678건 → 432건, ▲246건) 정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동기 기자

5·18교육관, 초등 자녀 가족 '5·18캠프'



광주시 5·18민주운동교육관은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28일 5·18가족캠프를 운영한다. 5·18가족캠프는 1박2일 동안 5·18자유공원 등 사적지를 투어하고, 방 탈출 게임, 가족 골든벨 등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놀고 즐기며 5·18 광주민주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김도기 기자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28일 5·18가족캠프를 운영한다.

5·18가족캠프는 1박2일 동안 5·18자유공원 등 사적지를 투어하고, 방 탈출 게임, 가족 골든벨 등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놀고 즐기며 5·18 광주민주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면 참가할 수 있다. 캠프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선착순 12가족을 모집한다.

신청은 5·18교육관(062-372-5180)이나 구글 폼으로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 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로 예술관광 떠나요

맛있는 아트 피크닉·아트 버스 운영...상·하반기 총 11회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북구 삼각동 소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예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행센터에서는 음식과 문화를 소재로 한 '맛있는 아트 피크닉'과 '북구 아트 버스' 등 2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맛있는 아트 피크닉'은 국립광주박물관과 문화·예술 시설이 모여있는 북구 중외공원을 둘러본 뒤 지역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보는 행사다. 13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상반

기,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반기 등 총 11회 운영된다. 해당 기간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열리며 회당 15명이 대상이다.

'북구 아트 버스'는 광주송정역과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북구 대표 명소를 잇는 투어 형태다.

상반기에는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전문해설사와 함께 방문하는 '오일 버스'를 5회 운영, 하반기에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테마로 전시관을 관람하는 '비엔날레 버스'가 6회 진행된다.

오일 버스 운영은 오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비엔날레 버스는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운영 기간 지정된 토요일 회당 20명에 한해 겨우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순천교육청, 교육장기 학년별 육상대회 성료

'글로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순천교육'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9일 이틀간 '육상으로 함께하는 순천교육! 글로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순천교육'이란 주제로 '제27회 교육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대회에 참가한 학생, 학교 관계자 및 응원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올해로 제27회를 맞는 교육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는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8일(월)에는 관내 초

등학교 37교 593명, 9일(화)에는 중학교 20교 362명, 총 955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우리 지역 육상 종목 저변 확대와 육상 꿈나무 발굴을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틀간 진행된 대회 결과, 초등 A그룹(10학년 초과) 신대초등학교, B그룹(10학년 이하) 낙안초등학교, 남중부 A그룹(4학년 초과) 순천왕의중학교, B그룹(4학년 이하) 순천낙안중학교, 여중부 A그룹 순천금당중학교, B그룹 순천승주중학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진도우체국, 우정사업 경영평가 1위 쾌거

경영수지 개선도·우편매출 등 전분야 최우수 달성



진도우체국은 2023년도 우정사업 경영평가에서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중 경영수지 개선도, 우편매출, 예금·보험사업 등 전분야에 걸쳐 1위를 달성해 2023년도 우정사업 경영평가 최우수국의 쾌거를 이뤄냈다.

진도우체국은 1997년도 우정사업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이뤄 낸 성과로, 경제적 침체 분위기 및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직원간 소통을 강화해 사업참여에 따른 노사간의 이해와 공감하는 새로운 조

직원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치밀한 영업지표 관리와 생산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병태 진도우체국장은 "우정사업 경영평가 1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직원이 행복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올해도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해 나날이 발전하는 진도우체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영 기자